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전도 제목:전도가 답이다 성경: 요한복음 4장5-14절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굽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아굽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아굽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아굽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5-14)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라 하는 성에 들어가셨다.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가에서 쉬기 원하셨으나, 두레박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 그때 여인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와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도 이상한 일이 되기도 한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게 마련.

-심지어 각 사람마다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져 있게 마련. 이런 문화적인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도가 쉽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도의 문은 닫힌다.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전도에 잘 이용하면 좋다.

-전도가 문화적인 침투인 것은 틀림이 없고, 기독교문화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인 점도 틀림이 없으나, 그 방식은 되도록 평화스럽고 호의적인 것이어야 효과적이다. 거부감이 강할 수 있으나, 되도록 호의적이면 더 낫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친자를 쉬게 하고, 병든자를 낫게 하고, 답답한 자를 시원케 하고, 낙심한 자를 열심히 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영적이다. 모든 문화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룩해져야 한다.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곧 전도이다.

-주님은 우물이라는 단순한 장소에서 전도하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갈등의 장소요, 말을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여인의 반응은 의외로 까칠했다. 따지기 좋아하는 여인. 당돌하고 똑똑하고, 도전적이며,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었다.

-이때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성령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이 좋다. 신령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호의적일 것, 겸손할 것,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질 것,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작컨대 이 여인

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해서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꿈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물가에서 받았을 것이다. 그는 우물가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었을 것이며, 그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 것이다.

10절 말씀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힌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예언적인 분이셨으며, 그날 그 여인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꿈의 주인공이며, 그가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은 곧 생수라는 것이다.

11. 그러나 여인은 따지기 좋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과연 자신이 꿈 속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인지를 검증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꿈 속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손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아마도 이때 여인이 물을 길어 예수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마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목마름과 목마르지 아니함을 대비시켜서 전도하셨다.

-어떤 물이든 다시 목마르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워진다는 것이다. 해결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곧 답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위료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위로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신다. 죄 때문에 고생할 때, 죄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해답이 되신다. (해답;해답은 알미운 답이 아니다.)

-전도는 설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어떤

갈증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어떤 죄악속에 있었는지를 이야기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전도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그 물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런 영적 지도는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요즘의 지혜가 된다. 교회가 곧 야곱의 우물가와 같다. 전도에는 반드시 영적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남편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곧 문제였다. 딱히 데려오고 싶은 남편이 없었다. 물론 남편은 많았는데,(대단히 황당한 말이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남편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서 여인의 생각에 동의하셨다. 남편이 많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적인 일, 자신이 현재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들을 꺼내놓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으며, 이 여인은 스스로가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다.

-모든 인생에 전도가 답이다. 모두가 전도 받기가 준비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받기에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호의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아야 하고, 태도가 공손해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

-먼저는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간증하자.

-영적인 코칭은 교회를 통해서 하자.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사실 내 삶에서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진다. 먼저는 내가 온전하게 변하고, 내 가정과 일터가 긍정적으로 변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교회가 전도한다 말씀: 데사로니가전서
5장12-24절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5:12-24)

교회는 건물 + 교인이 교회다. 건물만으로도 교회가 아니고, 교인만

있어서도 부족하다.

먼저는 건물이 전도한다. (편리한 시설과 교회다운 외관이 중요함. 그러므로 성전과 건물이 거룩하며 편리하며 아름다우며 정감이 가득 기도하자.)

다음으로 교인이 전도한다.

-교역자와 셀 리더들/헬퍼들/영적 리더들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전도된다. 인재들을 귀하게 여길 때 전도된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전에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때문에 들과된 것을 선전하라.

13. 그들의 역사/사역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역사가 배가된다. 더 복이 된다. 그리고 화목하라; 그래야 복이 지켜진다. 불화는 복/역사/은혜를 소멸한다.

14절은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할 때 전도한다.

15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현저하게 악을 이기는 모습이 전도한다. 악이 이기면 전도는 실패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전도한다.

17. 기도는 언제나 강력하다. 기도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합법적으로 현실에 개입시키는 것. 영적인 일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환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는 모습이 전도한다. (왜냐면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되고, 부자들도 겸손케 만들기 때문이다.)

-가난이 불편하긴 해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가난해도 떳떳하라. 가난해도 자존심을 잃지 말라. 당당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잃는 것이다. 가난하니 당당하게 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왜냐면 모든 부자들은 정중하면서도 권세있는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사명이 있다. 정중하면서도 권세있는 부자가 진짜 부자다. 불안한 부자는 가난한 자와 다르게 무언가?

19. 성령께 집중해야 전도된다.

20.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영혼을 사로잡는다.

21.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야 전도된다.

22. 악한 것을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

23-24;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아멘.